

## 미제가 감행한 인천상륙작전과 그 실패

김 병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미제침략군과 리승만괴뢰군을 계속 추격소멸하면서 부산일대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습니다. 연속적인 패배에 극도로 당황한 미제는 태평양방면에 있는 자기의 룡해공군과 추종국가 군대를 끌어들이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16권 153~154페이지)

미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모험적인 인천상륙작전에서 마치도 저들이 그 무슨 일련의 군사적성과라도 거둔것처럼 떠돌고있다.

전쟁 제1계단시기 영웅적조선인민군대의 진격앞에 패전에 패전을 거듭한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은 락동강남안에까지 쫓겨가 멸망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멸의 위기에 처한 미제는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방대한 룡해공군무력을 투입하여 대규모적 공세를 감행하려고 하였다.

미제가 계획한 새로운 대규모적공세(《총공세》)는 두개의 공격집단을 편성한 다음한 공격집단(미10군단)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일대를 강점함으로써 인민군대의 보급선을 끊으며 동시에 락동강계선에서 다른 공격집단(미8군)이 공세를 취하여 인천상륙집단과 련합함으로써 락동강전선에 진출한 인민군대의 주력을 《포위소멸》할것을 노린것이였다.

적들은 이 《총공세》를 《스레치(모루)-함마(매)작전》이라고도 불렀다.

인천상륙작전은 바로 모험적인 《총공세》의 첫 작전단계로서 인천-서울지구를 점령하는것이였다.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미 룡해공군의 상륙전문가들로서 《합동전

략계획 및 작전반》이라는것을 조직하고 《크로마이트계획》이라는것을 작성하였다.

1950년 8월 30일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준비를 추진시킬것을 정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과 7보병사단을 기본으로 미 제10군단이 편성되었으며 미 제7련합기동함대가 무어졌다.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첩보활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맥아더사령부의 2부밑에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군정보기관 등을 망라하여 종합특수작전본부를 조직하고 《트루니켄슨》이라고 불리우는 특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약 250명의 《켄슨》대원들을 배또는 락하산으로 인천부근의 섬들과 인천 시내 및 그 주변에 침투시켜 인천 앞바다의 구체적인 지형조건과 기뢰부설정형, 인민군대의 병력과 장비 및 배치상태를 탐지하였다. 한편 상륙지점을 은폐하고 인민군대의 주의를 판데로 돌려보려는 계책밑에 미군이 마치 10월 중순에 군산에 상륙하는것처럼 요언을 퍼뜨리게 하였고 군산과 삼척일대에 대한 폭격과 허위상륙놀음을 벌리였다.

미제는 면밀한 준비끝에 1950년 9월 중순 모험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관문인 월미도강점을 《인천상륙의 전제》로 규정하고 월미도를 재더미로 만드는데 포격, 폭격의 중심을 두었다.

작전개시에 앞서 10~12일에 함재기들으로써 불과 0.66km밖에 안되는 작은 섬에 500 Fd(1 Fd는 약 453.5g)짜리 나뭇탄 190발을 떨어뜨려 섬을 불바다속에 잠그었다.

13일 오후 1시부터 제9구축함대의 6척의 구축함과 4척의 미영 중순양함으로 이

루어진 제6함포지원대가 월미도를 반달형으로 포위하고 수천발의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적인 월미도 해안포병들의 맹렬한 대응사격에 의하여 2척의 구축함이 격파되고 2척의 소함정이 격침되자 적들은 당황하여 곧 팔미도쪽으로 도망치고말았으며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중순양함들에 의한 대구경포사격만 하였다.

단숨에 월미도를 점령할수 있다고 타산했던 맥아더는 악에 받쳐 14일에는 직접 기함 《마운트 맥킨레이》호를 타고 인천앞바다에 기여들어 작전을 지휘하였다. 이날 적들은 함재기들에 의한 맹폭격과 함께 전날과 같은 대형으로 함선들을 동원하여 1732발의 125mm 포탄을 퍼부었으나 역시 인민군해안포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손실만 내고 퇴각해버리었다.

작전이 개시된 3일째인 15일 새벽 2시 적들은 월미도공격을 위하여 19척의 순양함, 구축함, 방사포상륙지원정, 수송선 등을 월미도에 접근시켰다. 5시부터 상륙을 엄호하는 비행대의 폭격과 전함대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었으며 3척의 방사포상륙지원정이 15분동안에 무려 4400발의 포탄을 퍼부으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월미도에 상륙할수 있었다.

월미도상륙후 적들은 즉시 병력을 총동원하여 인천-서울지구를 강점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여 28일에 서울을 강점하는것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결속하였다.

그러나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모험작전이였다.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한 작전으로되는것은 우선 이 작전이 기도했던 시간내에 결속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전쟁의 매개 단계에서 진행되는 크고작은 작전들은 시간에 의하여 그 승패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더우기 인천상륙작전은

락동강계선에까지 진출한 인민군주력을 《포위소멸》한다는 목적밑에 감행된것으로 하여 기도했던 시간내에 결속되어야 인민군주력이 빠질수 있는 퇴로를 차단할수 있었다.

당시 우리 인민군주력부대들은 전라남도 와 경상북도일대의 락동강전선에서 미 제8군과 가렬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는데 지리적으로 놓고볼 때 서울로부터 직선상으로 주요 전선들인 하동까지 280여km, 팔공산까지 약 230km, 포항까지 270여km로서 대체로 300km계선이내에 위치하고있었다.

그러므로 맥아더는 《총공세》를 개시한 때부터 인민군주력부대들이 후퇴하여 서울계선에까지 도달할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10군단장 알몬드에게 무조건 《5일간에 서울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하루면 될것이라고 타산했던 인천상륙에만도 4일이 걸렸다. 자그마한 하나의 섬인 월미도를 장악하는데 3일이라는 긴 시간이 허비되었고 인천시가를 점령하는데도 하루가 걸렸다.

서울에로의 공격도 첫날부터 좌절되였다.

인천에서 서울은 거리상으로 약 36km밖에 되지 않는 지척이었다. 그러므로 맥아더는 인천상륙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화가 났지만 서울점령만은 2~3일내에 결속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며 자기를 위안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완전히 오산하였다. 월미도에 상륙한 적들이 서울을 점령하는데는 무려 14일이라는 긴 시간이 허비되었던것이다.

작전전기간에 맥아더는 서울강점시간과 관련한 명령을 세차레나 내리였다. 처음으로는 작전을 개시하면서 15일까지, 두번째로는 22일까지, 세번째로 25일까지 서울을 점령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였으나 어느 한 명령도 집행되지 못하였다.

더는 목적을 이룰수 없게 된 맥아더는 9월 26일 오후 2시 10분에 《유엔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때 서울시 절반이상을 아직 인민군대가 장악하고있었고 파괴중양청과 미국대사관 건물에는 공화국기가 힘있게 나뭇기고있었다. 서울을 《완전점령》하였다는 미 제1해병사단의 1련대는 마포계선에 있었고 5련대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겨우 서대문부근에까지 왔으나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다.

적들은 서울을 장악하기 위한 시가전에 만도 3일을 허비하였다. 26일부터 시작된 시가전은 27~28일에도 파괴중양청건물을 중심으로 시 동북쪽구역에서 계속되었으며 28일 저녁에는 조직적으로 철수하는 인민군대의 뒤를 따라오던 적들이 미아리고개에서 다시한번 강력한 타격을 받고 서울시내로 쫓겨갔다.

이날로 인민군부대들의 영웅적인 인천—서울지구방어작전은 끝났다. 결국 미제침략자들은 인천상륙작전에 5일이 아니라 16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이 군사행동의 생명인 시간을 잃어버린 실패한 작전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한 작전으로 되는것은 또한 미제의 군사기술적우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앞에서 심대한 참패를 당하였기때문이다.

사실 미제가 인천상륙작전에 들이민 병력과 장비는 방대하였다.

조선전쟁을 지휘하고있던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에 조선전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보고 미 제1해병사단과 7보병사단을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각종 포, 탱크, 공병 등의 무력(남조선피뢰군과 추종국가병력 포함) 으로 조직된 제10군단과 제7련

합함대, 미 제5공군 등 5만여명의 대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약 1 0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였다. 상륙작전을 현지에서 집행할 제10군단장으로 제2차세계대전시기 이탈리아전선에서 사단장으로 악명을 떨치고 전후에는 맥아더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있던 알몬드를 임명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당시 동원할수 있는 최대의 무력을 다 동원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은 기존공식을 뒤집어엎고 군사적기적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병력을 투입하여 전선의 허리를 끊어놓고 랑동강계선의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꺾어보시고 서울—인천계선에 세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들의 서울—인천점령을 최대한 저지시킴으로써 인민군주력부대들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보장할데 대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서울—인천지구방어부대들과 서울시민들로부터 무어진 인민의용군부대들은 수적으로 대비할수 없이 우세한 적들과의 싸움에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발휘하였다.

적들의 단말마적인 폭격과 포격속에서도 월미도의 해안포병들과 보병중대전투원들은 마지막 포탄이 없어질 때까지 적함과 싸웠으며 모든 저격무기들을 다 동원하여 적의 상륙정들에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포탄이 떨어지자 리대훈해안포중대장을 비롯한 용감한 전투원들은 수류탄을 안고 육탄이 되어 상륙하는 적땅크를 까부시였다. 맥아더는 단 4문의 포밖에 가지지 못한 인민군 1개 중대가량의 무력이 300여척의 함선과 약 1 000대의 비행기를 가진 대상륙집단을 3일간이나 저지시킨 군사적기적앞에서 전율과 공포를 느끼였다.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은 인천—서울계

선의 방어에서도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면서 적들의 침공을 최대한 저지시키였다.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서울강점작전의 선두에 서서 부평쪽으로 공격해나가던 주력부대인 미 제1해병사단의 편대들은 서울—인천지구방어부대들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인천 시내에 쫓겨들어왔다. 미해병대원들은 조선인민군이 완강한 반격으로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비명을 질렀다.

약하다고 보았던 인민군부대들의 반격에 당황한 맥아더는 21일 조선에 기여들어 총공격을 명령하였으나 미 제1해병사단을 비롯한 적상륙집단은 봉대산, 원흥리 일대에까지 격퇴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의 참패상은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00m를 전진하는데 5시간이상 걸리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25일까지 배에 실어보낸 시체와 부상자만도 6 000명계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알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의 전과정은 그야말로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제의 군사기술적우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위력앞에서 심대한 참패를 당하는 과정이었으며 사상정신의 위력은 상상할수 없는 군사적기적도 안아온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한 작전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작전이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근본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제는 인천상륙작전을 통하여 인민군주력을 《소멸》하고 전쟁을 빠른 시일내에 결속하려고 하였지만 이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미 제10군단이 인천—서울일대에서 되게 얻어맞으며 어물거리는 사이에 락동강까지 진출했던 인민군주력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매우 빠른 속도로 조직적인 후퇴를 진행하였다.

정세는 적들자신이 느낀것처럼 《어느쪽이 공세로 넘어간것인지 알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락동강계선의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려던 맥아더의 《모루—함마작전》은 완전히 파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인 후퇴를 진행한 락동강전선의 인민군주력부대는 한달후에 미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위한 재진격의 길에 올랐던것이다.

그리하여 미제는 또다시 《12월의 총퇴각》이라는 력사에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겪게 되었던것이다.

력사적사실은 미제가 인천상륙작전이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킨 《군사적결작》인것처럼 떠들지만 미제의 참패상을 가리우기 위한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의 패배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었다.